

# 지시가 아닌 ‘이해’의 안전관리 중요

안전전문가들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즉 경영진의 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사업장에서 우수한 안전관리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무재해 사업장을 가보면 여지없이 경영진이 높은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페리 유한회사 장안공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 이곳 사업장의 안전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사람은 공장장인 최진완 상무다. 최 상무는 ‘안전’을 현장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안전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 총책임자가 안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곳에서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안전이 기업의 성장과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하는 최 상무를 만나 그만의 안전신념을 들어봤다.

취재 연습기 기자 skyway@safety.or.kr

## 페리 유한회사 최진완 상무



## 독일의 선진 안전철학 구현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에 본사를 둔 페리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에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거푸집, 동바리, 비계 관련 시스템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한국지사인 페리 유한회사는 1994년 설립됐으며, 그동안 삼성동 아이파크, 서해대교 등 굵직한 대형 공사에 참여하면서 국내 거푸집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페리 유한회사가 국내 설립 직후부터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배경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둔 경영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리의 모든 제품은 안전을 최우선하여 생산된다. 제품 자체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페리의 제품으로 인해 인명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런 안전선진국 독일기업의 경영철학은 최진완 상무에게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최 상무는 입사 전 수년간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 때문에 독일의 선진 안전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그는 인간존중의 철학을 작업장에 적용하는 한편 원칙에 충실한 독일의 기업문화를 현장에 접목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 상무는 “안전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경영자는 회사를 위해서 근로자를 지키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며, 근로자는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공생 즉 ‘WinWin’의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 안전관리의 시작은 '정리정돈'

이곳 사업장의 첫 느낌은 '깨끗하다'는 것이다. 각종 자재들은 각을 맞춰 차곡차곡 쌓여 있고, 현장 바닥에는 작은 쓰레기 조각 하나가 없다. 그 이유는 최진완 상무가 '정리정돈'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이다. 최 상무가 안전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는 '청결'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마음이집부터 새롭게 다잡기 때문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곳 사업장은 작업 전·중·후 수시로 현장정리를 하고, 평소 각종 자재 및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 상무는 "작은 볼트 하나라도 잘못 밟아서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대한 현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 안전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하는 것

최 상무는 직원들에게 안전과 관련한 당부를 할 때는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거듭 강조를 한다. 이는 직원

들이 안전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설비를 철저히 설치하고, 곳곳에 안전표어와 포스터를 붙여 놓아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사고는 발생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당부가 근로자들에게 지시가 아닌 이해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경영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상무는 앞으로 자체적 위험성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함은 물론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사고 1000일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업 전 주변 상황 살피기, 작업 시 동료 행동 살피기,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 등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에 대한 배려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처럼 최상의 안전환경을 구축하려는 그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우수 안전사업장 페리 유한회사의 명성은 향후에도 굳건할 것으로 보인다. ☺